

# 男子看護員의 教育



= 동등한 위치에서의

동요자를 위하여 =

안 경 휘

<서울 위생병원 간호원장>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만 남자들을 간호원으로써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간호원 그 자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남자간호원이란 그리 신기한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간호행정, 교육, 임상에서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여자간호원과 남자간호원 사이에 어떤 차별 같은 것을 들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간호원 양성생으로써 남자들을 모집한 것은 1936년 간호원양성소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부터였으며 현재까지 22명의 졸업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여려해 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이 남자간호원 자격문제 때문에 간호협회와 보건사회부에 문의하고 논의해 보았으나 한국에서 단 하나 뿐인 우리 병원의 남자 간호원들은

그 자격을 아무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만 하면서 간호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2년도에 현 보사부간호과장 황영희선생과 서울시의 김아덕 선생의 이해와 노력으로 우리 남자간호원들도 보건사회부가 인정하는 자격간호원으로써 면허장을 받고 간호협회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선생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욱 훌륭하고 보람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남자간호원을 양성해야겠다고 마음에 계획을 세워 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원만하게 간호하기 위해서는 남자간호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임상에 나가서 일을 해보면 남자간호원을 꼭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일에 부딪치게 됩니다.



<졸업식에서의 남자간호원들>

간호원이 환자를 간호하는데 성을 분별한다는 것은 완전한 간호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사회제도와 윤리를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인간인 이상 간호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써의 자기 위치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신뢰와 안일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하려면 우선 아무 것도 구애받지 않고 감정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어색한 마음의 갈등 같은 것을 환자가 느끼게 하고서는 좋은 간호를 기대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간호원으로써 습득한 숙련된 간호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호라는 전문분야의 지식을 원만하게 간호로 옮길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

어야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intern 들이 간호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호원으로써의 기술을 연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숙한 솜씨로 환자를 간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질병을 안다는 것과 간호를 잘 한다는 것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intern에게 실습할 기회는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간호를 실시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간호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간호원을 단지 기술만을 습득한 기계화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박애와 희생, 봉사를 근거로 하여 자라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일에 한들

을 바치겠다는 결의는 그렇게 값싸게 평가될 수 없는 숭고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간호원에 대한 인식이 과히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의사들의 장식에서 벗어난 행동과 사고로써 간호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자들이 간호원이라 하면 여자간호원들 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는 관념으로 남자간호원을 대하기 쉬우나 그것이 큰 오해인 것입니다.

남학생은 군소집 연령 관계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의 학생에게만 입학 자격을 주고 있는데 매년 2명 혹은 4명 밖에는 모집하지 않으므로 경쟁률이 센 시험을 치게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깊이 고려하여 정선하도록 마련된 조목들에 합당함을 시험받은 후에 선출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과목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실습면에서도 성실하며 무엇을 좀더 알겠다, 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일해 보겠다는 의욕과 열성이 여학생들 보다 강합니다.

학급에서도 여학생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좋은 의견들을 발표하고 즐거운 분위기들을 조성하는 것을 볼 때 남학생들은 학급의 보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학과는 여학생들과 같이 하고 실습은 남학생을 위해 실습실이 따로 있어서 행동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김살없이 자신

들을 키워가려는 노력 뒤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피로움도 있습니다. 똑똑하고 한창 젊은 나이이고 보배 주위 환경에 전혀 무관심할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부당한 취급을 할 때 그들은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이러한 것들이 외로운 환자를 이해하고 도와주는데 필요한 관용과 인내를 길러 주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이런 점에서 남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이해로써 그들을 돕고 지도하고 있으며 가족적인 정 의로서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3년의 생활을 착실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병실의 모든 일에도 능률적이어서 환자들과 상사들의 신 일도 두터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부문에서 다 환영을 받습니다. 남학생들이지만 그들은 환자의 기호와 질병에 이해를 가려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영양사에게 1개월간 식이요법과 영양식, 환자 식사 차리는 법까지 실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X광선실, 검사실, 약방, 물리치료실등 다방면에서 다른 기사들과 조금도 손색이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못하고 군에 소집되어 가는 일도 있으나 간호 학교에서 받은 교

육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역을 마친 후 학교에 돌아와서 더달한 학점을 마저 채우고 졸업을 하기도 합니다.

3년간의 학교생활은 어둠, 겨울방학 외에는 24시간이 다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숙사라는 단체 생활이 그들의 품성을 조화시키는데 좋은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서로 돕고 아끼는 모습들은 흔히 보지 드문 우정입니다. 이런 생활환경이 훌륭한 간호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원칙은 그리스도인 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품성이 도야되고 세상의 허황된 욕망과 타협하지 않는 굳은 의지를 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결단한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참된 봉사에 언제나 응할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건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정에 비추어 보아 남자간호원들의 필요성은 병원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농어촌 무의촌 남자학교 산업공장등 다방면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인재의 부족을 메꾸어 기술과 힘을 제공하는데 여자들 이상의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병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나 병역관계로 몇년씩 병원을 떠나 있게 되므로 남자간호원의 수는 넘쳐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집되어 가던 위생병으로써 훌륭한 기술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자기가 배운 기술로써 훌륭히 근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며 새로운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새 지식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과단성이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력과 결과를 검토하는 성의가 있습니다. 이들 남자간호원들의 이러한 재능들은 앞으로 간호사업에 큰 발전을 기여하리라 믿으나 그것은 우리가 남자간호원을 얼마나 간호원으로써 중요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못하는 것으로 좌우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학교엔 남자간호원을 지망하는 9명의 입학 지원자가 찾아 와서 그중 우수한 2명을 뽑아 28명의 여자 간호학생과 같이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남자간호원 지망자가 나오리라 믿으며 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리라 하는 것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